



## ■ 축산시험장 연구결과 발표회

축산시험장(장장 김 강식)은 85년도 시험연구사업결과 발표회를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축산시험장 대강당에서 가졌다.

발표내용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발표일정

#### • 제 1 일 양돈분야(12월 9일)

13:00~13:20 개회  
13:20~17:00 양돈시험 연구결과 발표(12제목)

#### • 제 2 일 가금, 영양이용분야(12월 10일)

13:20~16:00 가금시험 연구결과 발표(9제목)  
16:00~17:40 영양이용 시험 연구결과 발표  
(6제목)

#### • 제 3 일 한우, 낙농분야(12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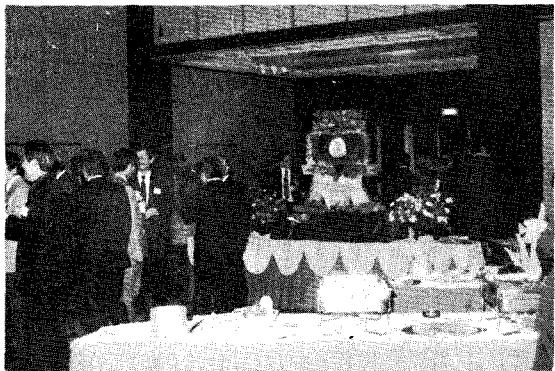
10:20~15:30 한우시험 연구결과 발표(14제목)  
15:30~18:00 낙농시험 연구결과 발표(7제목)

#### • 제 4 일 초지 사료작물분야(12월 12일)

10:20~15:15 초지조성 시험연구결과 발표  
(15제목)  
15:15~18:00 사료작물 시험연구결과 발표  
(9제목)

## ■ USFGC Stolte 회장 일행 방한

USFGC 한국지부(회장 박영인)는 지난 11월 10



△ 힐튼호텔에서 환영리셉션 광경

일부터 13일까지 USFGC 무역사절단을 초청하여 국내 축산관련 학계, 업계, 관계관 등 인사 200여 명과 함께 힐튼호텔에서 환영연을 개최했다.

Stolte 회장 등 일행 7명은 방한기간중 사료곡물 관련 한국업계 및 정부대표들과 만나 USFGC는 미국의 농업과 농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어떠한 무역상의 불공정조치도 반대하며, 특히 미국 농산물 수입국의 대미 수출제한은 부당하므로 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Stolte 회장은 Korea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USFGC를 비롯한 농업, 수출입 및 소비자 관련단체들은 교역대상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무역정책 8 원칙을 공동제시하고 이의 성실한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에 있어 USFGC는 그동안에도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개선에 협조하는 등 한국의 대미수출증진에 우호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 주미한국대사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기

## ●기관·단체 소식

도 했다.

한편 Stolte 회장은 오늘날의 국제무역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수입 개방과 사료곡물교역의 장기적인 호혜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의 미국사료곡물 대한수출이 반감하였고 시장점유율에 있어서도 40% 미만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양상이 앞으로 한미양국의 통상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Stolte 회장 일행은 종공과 우리나라 방문을 마치고 11월 14일 출국했다.

### ■ 사료절감수기 수상작 결정

- 11월 28일 시상식, 단행본도  
발간키로 -

축협중앙회는 「사료곡물절감 체험 성공 사례수기」 입선작 10편(당선작 1, 가작 2, 장려상 7)을 결정하고 11월 28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성공사례수기 현상공모에는 모두 51편이 응모, 학계·축산 전문가·문학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선을 거쳐 10편의 입선작을 냈는데, 상금은 당선작 50만원, 가작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이 주어졌다.

한편 농수산부 사료과는 응모된 51편의 성공사례 수기를 단행본으로 펴낼 예정이다.

### ■ 유가공협, 광고대상 수상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강성원) 한국일보사 주최 85한국광고대상 식음료부문을 차지했다.

동협회가 이상을 받게 된 것은 유제품공동광고를 통해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소비확대를 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 ■ 농개공사장에 안교덕씨

정부는 11월 23일자로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에 안교덕씨를 임명 발령했다.

〈약력〉

• 경북 울진 출생

- 육사11기
- 서울대영문과졸
- 육사교수
- 정우개발사장
- 11대 국회의원

### ■ 단미사료협회 정기총회

한국단미사료협회(회장 양효진)는 11월 27일 협회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85년 예산을 결산한후 8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 ■ 쇠고기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

- 11월 25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

「쇠고기 부위별 요리강습회 및 시식회」가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 주최로 11월 25일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있었다.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 왕준련) 후원으로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반 가정이나 단체급식용으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쇠고기요리 50여점이 선보였으며, 쇠고기의 올바른 부위별 이용방법, 조리법, 부위별차등가격제의 필요성 등이 소개되었다.

### ■ 미 스크림쇼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

ASA한국지부(대표 이경원)는 한국일보사가 주최하는 미 스크림쇼 교수 초청 특별강연회에 후원자로 참여, 지난 11월 22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식품관련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의 영양과 질병예방을 위한 식생활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스크림쇼교수는 질병을 예방하고 주요 영양소의 결핍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식생활 개선 방법에서 식품영양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증진 등 유익한 최신 식생활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스크림쇼교수는 미MIT대 부설 국제영양연구소 및 임상실험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유엔 대기·해방문제 수석자문위원 및 세계보건기구의 의학자

문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식품영양학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통역에는 연세대 가정대 이양자 교수가 맡았다.

## ■ 수의학회장에 조충호씨

- 10월 27일 총회·학술발표회 개최 -

대한수의학회는 10월 27일 전경련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조충호교수(서울대 수의대)를 선출하였다. 또 부회장에는 윤화중교수(건국대), 정운의박사(가축위생연구소)가 선임되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학술발표회에서는 이영옥박사(가축위생연)의 TELISA(가축질병 진단기술)에 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 ■ 사료절감추진 순회강습회

- 수원·청주·전주·마산에서 1000여명 참석 -



한국사료협회(회장 마영호)는 농수산부와 공동으로 「85년 하반기 사료절감 추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수원(경기도청), 청주(청주시청), 전주(전주시청), 마산(마산시청) 등 4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양축가, 사료업 관계자, 시·도군 공무원 등 연인원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강연내용이 양축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루어져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강사로 양계분야는 김영환사장(신흥농장), 양돈분야는 윤희진사장(대월종돈장), 사료분야는 서광웅씨(서울우유협동조합)가 맡았으며,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많은 질의응답이 오가기도 했다.

김영환사장의 「사양관리를 통한 양계사료의 절감」 내용을 요약한다.

『흘리는 것만이 낭비가 아니다. 사료의 낭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을 지킨다면 지금보다 5% 정도의 사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사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사료낭비다.

계사온도가 내려가는 것은 곧 사료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21~26°C를 유지해주어야 한다. 또 방한 설비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환기를 삼가해야 하며, 계사의 방향은 가능한한 남향 혹은 동남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케이지물통관리의 잘못이다.

현U형 케이지 플라스틱 물통은 매일 3~4g의 사료가 허실되는 등 몇 가지 결함이 있다.

니플급수기는 수당 매일 22g의 사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연변을 줄일 수 있어 권장하고 싶다.

세째, 평사사육 문제다.

평사대신 빠다리육추-케이지 육성체계를 택할 경우 잊점이 많다. 육성사료 소비량이 10% 감소되고 기생충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암사방지, 건축비 감소, 균일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네째, 필요이상으로 닦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병아리를 너무 키우면 육성사료비가 증가한다. 육종회사에서 권장하는 표준체중에 맞추어주는 것이 좋다.

다섯째, 정밀사양법을 택해야 한다.

주령별 목표체중을 설정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여섯째, 관리태만도 사료낭비다.

사료급여시의 부주의, 모이통 불량 등으로 인한 사료낭비가 많다.

일곱째, 쥐피해를 줄여야 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집쥐의 1일 사료섭취량은 20

# ● 기관·단체 소식

~25g, 연간 130kg이라 한다. 쥐피해를 줄이려면 페드빈의 설치, 정기적인 쥐약살포가 필요하다.』

## ■ 미국·호주산 가금류 수입금지 해제

농수산부는 11월18일 미국 및 호주산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했다.

농수산부고시 제85-37호(85. 7. 5)의 미국 및 호주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수입금지고시를 폐지한다.

1985년 11월 18일

농수산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가축번식연구회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가축번식 연구회(회장 정영채)에서는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했다.

- 일시 : 1985년 12월 7일(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제5호관 101호실 (대구)
- 일정 : 접수 및 등록 09:30~10:00  
특별 강연 10:00~12:00  
학술 발표회 13:00~14:00  
정기총회 14:00~14:30
- 박항균박사 회장연 및 저서 봉정식
- 일시 : 85년 12월 7일(토) 오후 3시
- 장소 : 대구시 동아쇼핑센타 11층
- 특별강연 연제  
- 가축의 혈액형과 그 응용(田中一榮 박사, 일 본농업대학 교수)  
- Cornell대학의 번식연구동향(임경순 박사, 서 울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 돼지정자의 냉동 및 수정능력에 관한 연구

(박창식 박사, 충남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 ■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이오직)는 회원사 대표 20여명은 지난 11월 16, 17일 1박2일간 충남 대둔 산에서 등반을 겸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업계발전 도모와 가축질병 보호에 힘을 합칠 것을 결의하고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

## ■ 대한양돈협회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룡)은 소비자의 돼지고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의 기호성에 맞춘 요리방법의 보급을 위한 「제 1회 돼지고기 요리 경연 대회」가 지난 11월11일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품된 2백여점의 요리중에 최우수상은 나효인씨의 「깻잎 탕수육」이, 우수상은 하요안나씨의 「돼지갈비구이」와 김지연씨의 「제육돌구이」에 돌아갔다. 장려상에는 김지애씨의 「장조림」등 7명이 수상했다.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 5만원 등 푸짐한 상품과 상패가 수여된 이 날 행사는 수도요리학원이 주관하고 미대두협회, 선진축산, 제일제당 백설햄의 후원으로 서울을 비롯 광주,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제주에서도 개최했다.

## ■ 서울농대 전화변경

전화번호가 10월 1일자로 변경되었다.

전화번호 : <0331> 44-2130~6

축산기구전문 제작업체



일일 축산

농협온라인구좌 136 -02-004850 호계동지점 오범석  
안양시 호계동 986-9

D.D.D. (0343) ☎ 51-2690 (야간) 52-1591

